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에텐의 동쪽’ 방송 판권
100만달러에 해외 판매

MBC TV 인기드라마 ‘에텐의 동쪽’의 방송 판권이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100만 달러(한화 약 11억5천만 원)에 판매됐다. 이 드라마의 공동 제작사인 CCM은 23일 “‘에텐의 동쪽’의 방송 판권이 싱가포르와 필리핀으로 각 50만 달러(한화 약 5억 7천만 원)에 판매됐다”며 “이는 한국 드라마의 동남아시아 판권 판매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제작비 250억 원이 투입된 50부작 ‘에텐의 동쪽’의 방송 및 O.S.T 판권은 앞서 일본에 60억 원에 판매된 바 있다. 이 드라마는 22일 전국평균 가구시청률 26.6%를 기록해 경쟁작인 SBS TV ‘타짜’(11.8%) 등을 밀찌감치 따돌리며 독주 체제를 굳히고 있다.



광주 출신 개그맨 한민관

“스타가 되고 싶어?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
광주(정광고 졸업)출신 개그맨 한민관이 인기다. 그는 ‘개그콘서트’(KBS) ‘봉숭아학당’ 코너에서 노브레이크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등장, “스타가 되고 싶으면 연락해”라고 말하며 명함을 뿌리는 연예 매니저 캐릭터로 출연중이다.

“전달 형님들 모습서 힌트 지금의 캐릭터 만들었죠”

2008년 하반기 가장 주목받는 개그맨으로 꼽히고 있는 한민관을 전화 인터뷰했다. 인기를 실감하는 그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 지금 행복하다”며 “얼굴이 조금 알려지고 나니 고향 친구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에서 스타 제조기(?)임을 자처하며 그가 무대에서 뿌리고 있는 종이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명함. 하지만 연락처는 없다. “실제로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즉석 개그를 선보인다는 생각에 명함을 건네면서 ‘연락해’라고 말해요. 연락처가 없고 이름만 새겨진 명함을 받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해 묻기도 하는데 그 팬 웃음이 절로 나오죠.” 한민관이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자유자재로 흔들리는 머리. 지난 4월까지 ‘사랑이 팍팍’ 코너에서 ‘말라겐이 큰 형’으로 등장, 감마론 몸으로 인간줄넘기 등을 비롯해 얼굴 따로 몸 따로인 ‘몸개그’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은 바 있다. 그는 “지금 캐릭터는 광주에 있을 때 본 전달 형님들의 모습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며 “우리 어머니도 제가 대하는 것보다 목을 움직이는 게 더 웃기다고 말씀하신다”고 말했다. 한민관은 어린 시절부터 연기자를 꿈꿔왔다. 지난 2003년 군 제대 후 3일 만에 연기가

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상경했다. “지인의 소개로 연예기획사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개그맨 소속사였던 거예요. 월급 30만 원에 월세 25만원 짜리 고시원 생활을 했지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개그맨 선배들의 차를 운전하며 용돈을 받아 생활했는데 매니저처럼 정장 차림을 하는 것도 멋지게 느껴졌죠. ‘노브레이크 엔터테인먼트 대표’ 컨셉트도 그 당시 생각했던 아이템이었죠.” 알고 보면 한민관의 연기 경력은 꽤 된다. 1995년 방송된 SBS ‘모래시계’(SBS)에서는 5·18 민중항쟁 당시 “내 피도 빨아주세요”라고 수혈을 자원하는 어린이로 출연했다. 개그맨 데뷔 직전에는 재연배우로 잠시 활동했다. “배우의 꿈은 언젠가는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에게 꼭 맞는 조연배우로 나만의 연기를 하고 싶어요. 연기의 종류는 다양하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도 연기의 한 분야라고 생각해요.” 키 174cm에 몸무게 51kg의 왜소한 체격 때문에 이윤석과 함께 국민 약골로 꼽히고 있는 한민관은 외모와는 달리 레이스를 즐기는 스피드 광이다. 지난 3월 말에는 카레이서로 데뷔, 서울노브레이크클럽 소속 드라이버로 활약중이다. 바쁜 스케줄에도 한국 DDGT 챔피언십을 비롯해 꾸준히 경기에 출전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고려의 여걸 액션 연기 보여 드릴게요”

‘천추태후’ 채시라

“액션 연기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더 늦기 전에 멋진 역할로 그 꿈을 이루게 돼 기쁘요.” 두 아이의 엄마인 텔런트 채시라가 KBS 2TV 대하드라마 ‘천추태후’(극본 손영목 이상민, 연출 신창석 황인혁)에서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간 고려시대 여걸 천추태후 역을 맡아 강도 높은 액션 연기에 도전한다. ‘대왕 세종’ 후속으로 11월 22일부터 방송될 예정인 ‘천추태후’는 천추태후가 강감찬, 서희 등과 함께 고려의 옛 땅을 회복하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거란의 침략에 맞서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

왕건의 손녀이자 목종의 모후인 천추태후는 섭정으로 막강한 권력을 잡았던 인물로 나라를 위해 사랑했던 남자까지 죽여야만 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산 여인이다. “아이가 아직 어려서 울 때에는 작품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남근(김태욱)이 이 드라마를 안 하면 후회할 것 같다고 굉장히 설득을 많이 했다”면서 “액션 연습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 같다는 좋은 느낌이 왔다”고 말했다. 캐스팅 이후 그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액션 훈련을 했고 7월 남아 사고로 심각한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훈련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액션스쿨에서 승마와 무술을 연습하고 녹소가 꽤서 집에 돌아왔어요. 워낙 근육이 없었는

데 칼을 들고 액션 연기를 멋있게 하려면 근력이 있어야 하니까 팔굽혀펴기도 평생 처음 해봤어요. 연습한 것만큼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천추태후는 조선초 사화자들에게 의해 요부로까지 기록된 인물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번 드라마는 천추태후를 재조명하고 여성을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어서 더 관심이 있다. 채시라는 “남자 못지않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과 아들마저도 잃어야 했던 천추태후라는 인물을 알리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면서 “여 주인공이 이끄는 드라마의 선두주자로 나간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멜로와 액션이 함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연습스



9 BOX OFFICE

순위	제목	전국관객	전국누계
1	신기전	42만 5천371	295만 7천 483
2	맘미아!	41만 3천 275	264만 7천418
3	영희는 영희다	23만 5천 90	87만 9천687
4	울학교 이티	12만 400	57만 7천 674
5	미리	10만 9천247	12만 9천 39
6	황시	7만 1천137	9만 2천 402
7	외톨이	4만 5천 752	5만 4천 486
8	지구	2만 1천 612	19만 2천 338
9	꽃보다 남자	1만 7천 114	13만 2천654
10	방목 대인저스	1만 6천 946	19만 1천 55

(단위:명) (자료제공:영화진흥위원회)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엄마가 뽀뽀	KBS2	39.5
2	조강지처 클럽	SBS	34.6
3	너는 내운명	KBS1	28.1
4	에텐의 동쪽	MBC	23.0
5	일요일이 좋다	SBS	22.1
6	무한도전	MBC	21.4
7	황금어장	MBC	18.6
8	일요일일요일밤에	MBC	18.5
9	우리의성	SBS	17.1
10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	MBC	17.0

(단위:%) (자료제공:TNS리서치)

순위	제목	장르
1	추격자	액션
2	적벽대전 : 거대한 전쟁의 시작	액션
3	색즉시공 시즌 2	코미디
4	스트리트 킹	스릴러
5	스텝 2 : 더 스트리트	드라마
6	점퍼	SF
7	10,000 B.C	드라마
8	식객	드라마
9	포비트 킹 : 전설의 마스터를 찾아서	판타지
10	연의 황후	판타지

(자료제공:오피과 버그)

순위	제목	가수
1	히루 히루	빅뱅
2	천국	빅뱅
3	헤이 미스터, 빅	이효리
4	이 노래	2AM
5	유-고-걸	이효리
6	사랑후애	FT아일랜드
7	사랑과 전쟁	다비치
8	신데렐라	서인영
9	10점 민첩에 10점	2PM
10	사랑해 미안해	지아

(자료제공:멜론)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승세기소라·세기보청기

1588-8462 / 02-722-0100

11215300-9999